



**피티미의
성모**

065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10(잠원동)
사무실 ☎ 02-595-2416, 02-3146-0970
FAX 02-534-9591

주임신부 박상수 바오로
부주임신부 문필정 바실리오
보좌신부 김민섭 미카엘
원장수녀 최 스페스
전교수녀 윤 데니스, 민 크리스틴

주 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 오후 6시(청년), 오후 8시 오전 10시(중·고등부) / 오후 4시(초등부) *토요일 오후 6시(토요일저녁주일미사)		
평 일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0시, 오후 7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성시간	첫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유아세례	둘째 토요일 오후 2시	혼인면담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병자영성체	둘째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본당 사목 목표 : "모두가 주인공인 교회, 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

● 정순택(베드로) 교구장 영명 축일(6/29) 맞이하여
영적 예물 봉헌 안내

- ① 미사 및 영성체 3회 ② 묵주기도 5단 ③ 성체조배 3회
- ④ 희생 3회 ⑤ 주교를 위한 기도 3회

● 구역 미사 봉헌 안내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역별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오니
해당 구역 형제자매는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 시	해당 구역
6/14(주일) 교중미사	12, 13, 14 구역

- 구역미사 후 다목적실에서 식사가 마련되어 있음.
- 문의: 남성총구역장 신종범 안토니오 (010-3714-8720)
여성총구역장 김연숙 비아 (010-5032-9911)

● 6/12(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6/12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대축일이며 '사제성화의 날'
입니다. 본당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이날 교구 사제들이 사제성화의 날 행사 참여로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06시와 19시 미사는 있습니다)

● 태아 축복식 접수

- 일시: 6/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접수: 6/14(주일)까지, 사무실
- 문의: 이 가브리엘라 (010-2366-0535)

● 2026 중고등부 여름 캠프 접수 안내

- 일자: 8/6(목) ~ 8/8(토) (2박3일, 잠원동성당)
- 대상: 중1 ~ 고3 (선착순 60명)
- 신청기간: 5/31 ~ 6/30, QR코드로 신청
- 문의: 송 도미니카 (010-3712-3855)



● 2026 청년 여름 캠프 안내

- "젊은이야, 일어나라" (루카 7.14.) 즐거운 여름 캠프
당신을 기다립니다.
- 대상: 82년생 ~ 07년생 청년 (선착순 40명)
- 일시: 7/11(토) ~ 7/12(일) (1박 2일)
- 장소: 대부도 하이클래스 갤러리아
- 접수 기간: 6/6(토) ~ 6/28(일)
- 참가비: 40,000원
- 문의: 박 안토니오 (010-3707-1228)



● 위령기도회 모임 안내

- 일시: 6/14(일) 10시, 다목적실
- 문의: 이 헬레나 (010-8967-5200)

● 화요 성령기도회 안내

- 일시: 6/16(화) 20시, 지하 1층 소성전
- 미사집전: 김성대(안드레아)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
- 문의: 최 대건안드레아 (010-9253-1132)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후속 1단계

1. 기도 운동: 「이콘과 함께하는 묵주 고리기도」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참여
2. 홈스테이, 봉사자 신청: 홈스테이와 봉사자 신청으로
"2027 서울 WYD"에 적극적으로 참여
3. 기부 운동: "2027 서울 WYD를 위한 기부"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4. 스티커 부착: 차량 등에 "2027 서울 WYD" 스티커 부착

● 교무금 이체 유의사항

- <우리들의 정성> 하단에 기재한 교무금계좌는 잠원동성당
계좌로서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이체하시는 경우 반드시
채정자의 '이름, 세례명'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및 기부자 변경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공제 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전자기부금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주일미사 봉헌금은 원화 현금으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외화, 상품권
등으로 봉헌하지 말아주십시오)

● 교무금 책정 및 봉헌 안내

- 교회의 유지와 선교 사업 등을 위해서 교무금을 봉헌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봉헌해 주시는 교무금은 본당과
교구 운영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 교무금 책정현황(2026. 5월말 현재)

구 분	2025.12월	2026.4월	2026.5월	전월대비
총세대수	3,325	3,388	3,395	7
책정수	1,641	1,308	1,348	40
책정율(%)	49.4	38.6	39.7	1.1
납부율(%)	46.7	34.7	36.2	1.5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5/25~5/31)	-----	30,870,000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헌금 (5/31)	-	14,220,150
청소년주일 2차헌금 (5/31)	-----	6,374,000
2027 WYD		
감사 헌금	엄성용 5,000,000, 최우진 500,000, 익명 300,000, 장석문 300,000, 이지은 300,000, 홍연주100,000, 오세철 100,000, 백은기 100,000, 장혜수 100,000, 김재민 100,000, 아미쿠스합창단 200,000	
교무금계좌: (우리) 147-05-005743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잠원동성당 계좌 입금하실 때 반드시 입금인과 세례명 을 기재 요망. * 교무금계좌는 교무금,감사헌금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주일헌금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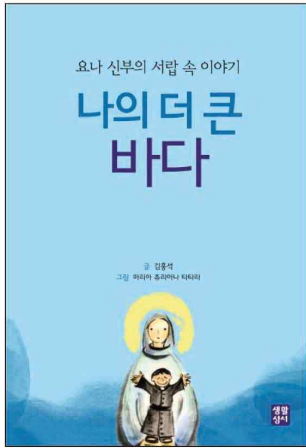
✦ 집운동 상황 | 파티마의 성모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will be shed for many. (Mk 14,24)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르 14,24)

발행인: 박상수 바오로 | 편집: 명도회(제보/문의: 이린 안젤라 010-3259-1060, violinlin@naver.com) | http://www.jwcc.or.kr

✦ 북클럽 성 파누엘의 6월 북리뷰

나의 더 큰 바다



저자: 김홍석 | 출판사: 생활성서

이 책은 저자가 신학생 시절부터 군중 사제, 선교사로 살아오며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성 에세이다. 월간 『생활성서』에 연재한 『요나 신부의 서랍 속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아냈다. 저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곧 ‘나의 더 큰 바다’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더 큰 바다로 던져질 때마다 오히려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정을 풀어낸다. 사제의 솔직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는 독자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건네준다.

성 파누엘, 이렇게 읽었어요!

김 로셀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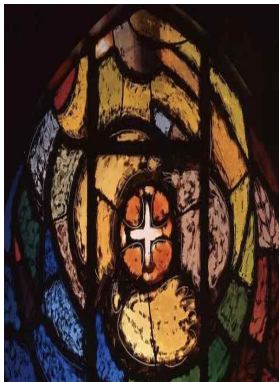
요나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군중 사제 시절 그리고 일본에서의 선교사 시절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와 다르지 않은 신부님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다. 신부님이 보여주신 관계 안에서의 유연한 사고는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나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었다. 신부님께서 서품식 날 제단 앞에서 울먹이며 속삭이시던 그 고백 ‘주님! 당신은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저를 일으켜 세워 사제로 삼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당신이 버려지신다면 제가 달려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나의 고백을 슬며시 얹어 함께 기도해 본다.

문 레지나

책을 읽는 동안 나는 특별한 기적이나 거창한 은총이 아니라, 일상 속 스쳐 지나가던 순간들 안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나의 더 큰 바다』는 신앙과 삶이 서로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 북 클럽 성파누엘에서 소개된 책은 성당 성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례상식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1) 오늘(7일)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제정하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 풍요로운 은총을 묵상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실체변화’의 교리를 고백합니다. 외형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그 본질은 온전히 주님의 현존으로 바뀌는 신비입니다. 머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코린11:26) [김나영 요셉피나]